왜가리의 은어사냥

강진군 군동면 탐진강에서 은어 사냥에 나선 왜가리가 카메라에 잡혔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강물이 많이 불어난 탐진강 일대에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은어를 노리는 철새가 부쩍 늘었으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철새들의 자리다툼도 치열하다.

여수시청사 3곳 살림 10년

민원인·공무원 큰 불편… 주민 이견 통합 차일피일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돼 여수시로 출발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청사(廳舍)는 3곳에 흩어져 있어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998년 4월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3 여(麗)가 여수시로 통합됐으나 청사는 학동 본청사(구 여천시청)와 여서동 여서청사(구 여수시청), 돌산읍 돌산청사(구 여천군청) 3곳에 분산 운영되고 있다.

본 청사에는 시장실과 부시장실, 경영기획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등이, 여서청사에는 의회와 도심개발사업단이, 돌산청사에는 관광해양수산국과 교육문화센터, 환경녹지사업소가 각각 산재돼 있다. 또 돌산청사에는 시장실이 별도로 있어 목요일엔 시장이, 수요일엔 부시장이 본청사에서 돌산청사로 옮겨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청사가 세곳에 분산되면서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큰 불편은 겪는 것은 물론 청사 유지·관리비(1년에 약 10억원)부담도 만만치 않고 업무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통합 청사 신축은 주변 상권 위축 등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임 시장 시절 학동 본청사 유휴부지에 통합 신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민선 4기 출범이후 백지화됐다.

시 관계자는 "청사 통합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청사 통합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며 "먼저 시민들의 청사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줄넘기로 몸짱 도전 장흥군이 지난달 30일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줄넘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장흥읍 탐진강 둔치에서 매주 월, 화, 수, 목 4일간 오후 7시부터 7시 40분까지 40분씩 진행되는 운동교실에는 매일 1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목포 입암산~韓電 뒷산 연결

도심 산책로 만들자

숲 우거져 시민 등산코스로 적합

목포 원도심과 하당 신도심 중간에 위치해 있는 입암산과 한국전력 목포지점 뒷산을 연결해 도심 등산로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발 110m의 입암산은 지난 1997년 원도심과 하당 신도심간을 연결하는 폭 40m의 왕복 8차로인 백년로가 건설되면서 양분됐다.

입암산 일대는 하당 산수정에서 백년로 앞까지 2㎞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아침, 저녁으로 직장인과 주부들이 즐겨 찾고 있다.

한국전력 목포지점 뒷산 역시 숲이 우거져 있어 700m 코스의 산책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주민들은 입암산과 한국전력 뒷산을 연결할 경우 쾌적하고 환상적인 도심 등산코스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분됐던 입암산을 구름다리로 연결하면 경사가 완만한 2.7㎞의 등산로가 만들어져 가족단위로 운동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김근용(53·상동)씨는 "도로 개설로 입암산이 두 토막이 나면서 제대로 된 등산로가 없어 아쉽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입암산과 한전 뒷산을 연결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심 등산로 개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시도 지난해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구름다리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시가 원도심과 하당을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인 백년로 개설로 인해 양분된 입암산을 구름다리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22일 밤엔 전등 끄고 별을 보세요"

목포 에너지의 날 행사

푸른 목포 21 협의회와 목포YMCA 등 시민 단체들이 오는 22일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목포 산정농공단지 일대에서 '제 4회 에너지의 날' 목포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별 보기 축제'와 함께 재활용 나눔 장터, 환경 영화제 등 주민 축제도 함께 열린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22일 낮 2시부터 1시간 에어컨 끄기, 밤 9시부터 5분간 전 시민 소등행사도 진행된다.

시민단체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 날인 지난 2003년 8월 22일을 기억하고 국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8월22일을 '에너지 날'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8일 오후 목포시청 소회의실에서 '목포시 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해남군 또 선심성 예산편성

군의원들 포괄사업비 19억 배정 논란

본예산 의원 1인당 1억5천만원씩 이어 두번째

해남군이 군의원들을 위한 거액의 선심성 예산을 또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본 예산에 군의원 1인당 1억 5천만 원의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데 이어 또 다시 6월 추경에 군의원 포괄사업비 19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특히 해남군은 마을 안길 덧씌우기와 농로포장, 하수구 정비 등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군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타당성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14개 읍·면 당 각각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 명세를 확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포괄사업비는 자치단체장이나 군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하는 예산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폐지 했으나 해남군에서는 올해 두 차례나 편성했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와 서로 봐주기식 유착관계를 형성해 예산을 나눠 먹고 있다"면서 "이 사업비 편성이 꼭 필요하고 투자 효율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사전에 군민 동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여수 앞바다 첫 적조경보

남해안 일대에 올들어 첫 적조경보가 내려져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7일 오후 6시를 기해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쪽 끝에서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까지 20㎞ 해역에 걸쳐 적조경보를 발령했다.

이 일대 적조생물의 밀도는 ㎖당 최고 1천750개체에 달할 정도로 고밀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산과학원은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염포 끝에서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쪽까지,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에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등대까지의 해역에 대해선 적조 주의보를 유지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발생한 적조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남해안 일대에 내리고 있는 비로 인해 당분간 적조생물의 활동이 일부 수역에만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사량이 다시 증가하면 수온상승과 함께 적조생물의 활동량도 많아져 남해와 통영, 사량도 등 양식장 밀집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양식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해양 스포츠 축제 한마당 내년 8월 목포서 열린다

국내 해양 스포츠 축제의 한마당인 '제 3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내년 8월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구사해 부산시, 울산광역시, 통영시 등을 따돌리고 스포츠 제전 유치를 성사 시켰다.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은 선수 및 관람객 3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양 스포츠 행사로 목포 평화광장과 외달도 주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식종목인 요트와 핀수영, 트라이애슬론, 비치발리볼, 카누경기와 번외종목 및 체험 프로그램인 드래곤보트, 바다래프팅,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등 25개 종목이 펼쳐진다.

목포시는 이번 스포츠 제전 유치로 국제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100억원 이상의 소득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영광 법성포 앞바다 선박 침수 폐유 유출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다랑가지앞 80m 해상에서 22t급 준설 바지선이 완전 침수돼 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선적 준설 바지선인 해룡호(선장 정금옥)가 법성항 매립공사 준설작업을 마치고 정박 대기 중 원인을 알 수 없이 선체가 완전 침수돼 폐유 200ℓ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법성항 인근 해안가 300여m가 오염됐다.

한편 해경과 준설회사 측은 9일께 해상 크레인을 동원해 침수된 해룡호를 인양할 예정이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 새얼굴

"평화통일 위한 각계 여론수렴 노력"

박 정 순 민주평통완도군협 회장

"평화통일에 관한 각계 각층의 지역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박정순(7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완도군 협의회 제 13대 회장은 "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외면 출신인 박 회장은 조선대 법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완도군 농협조합장, 완도군 의료보험조합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정순덕(72)씨와 1남4녀가 있다. 취미는 독서.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